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모처럼 데레사 수녀님이 공주에 왔다는 전갈에 서둘러 외부 일정을 마치고 '루치아의 딸'로 갔다. 루치아의 딸은 공주의 옛 거리에 있는 찻집으로 오래된 한옥 하나를 고쳐서 만든 찻집이다. 공주의 바닥 사람들에게보다는 외부 사람들에게 오하려 더 잘 알려진 찻집이다. 왜 루치아의 집인가 하면 찻집 주인의 세례명이 루치아이기 때문이다. 짐작하시겠지만 루치아는 천주교 신자. 그래서 찻집 이름도 '루치아의 딸'인데 이 집에는 그런 연고로 바깥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자주 찾아오신다.

내가 찻집에 들어섰을 때 수녀님 세 분과 운전전 맡은 남자 한 분이 루치아 내외와 함께 있었다. 데레사 수녀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童顔)의

하얀 제비꽃

수녀님이다. 마치 동화 나라에서 등불 하나를 들고 이 세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 세상의 등불로 바뀌 들고 동화 나라로 돌아가는 아이와 같다. 그렇구나. 데레사 수녀님에게는 우리 공주가 동화 나라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세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기에 그렇게 수녀님은 수녀원에서 짬만 생기면 공주를 찾는 것이고 또 루치아의 딸과 우리 풀꽃문학관을 방문하는 것이겠구나.

들어보니 수녀님 일행은 이미 풀꽃문학관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러나 마침 월요일이라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문학관 안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집 들레와 꽃밭만 보았노라 한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수녀님이 문학관의 꽃밭에서 제비꽃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수녀님이 데레사 수녀님이 머물고 있는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 "수녀님, 왜 제비꽃 사진을 찍으셨어요? 다른 꽃들도 많은데." "네, 보통 제비꽃은 보랏빛인데 문학관의 제비꽃은 하얀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하다. 우리 문학관에는 하얀 제비꽃이 있다. 있더라도 아주 많이 있다. 본래 문학관에는 하얀 제비꽃이 없었는데

문학관 관장의 일을 보는 조동수 선생이 다른 데서 캐다가 심어서 하얀 제비꽃이 살고 있다. 심더라도 아주 많이 심었다. 문학관 들레 마당과 담장 아래에 촘촘히 가득 심었다. 그걸 또 야생화 연구가인 백승숙 여사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원장님, 이 제비꽃 이렇게 많이 심으면 안 돼요. 이 녀석들 번식력이 강해서 나중에는 아예 제비꽃 밭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심어 준 조 선생의 눈치를 살피며 제비꽃들을 대충 뽑아냈다.

결국은 지금 문학관 뜰에 피어 있는 모든 하얀 제비꽃들은 그때 조동수 선생이 심었는데 뽑지 않은 몇 그루 제비꽃들의 후손이다. 말하자면 조 선생의 제비꽃인 셈이다. 그래서 나도 더러는 그 꽃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 왜 조 선생은 그렇게도 많은 제비꽃을 캐다가 문학관 뜰에 심었을까?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조 선생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한 분밖에 남아 있지 않던 육친마저 돌아가신 것이었다. 조 선생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한 분밖에 남아 있지 않던 육친마저 돌아가신 것이었다. 조 선생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한 분밖에 남아 있지 않던 육친마저 돌아가신 것이었다.

면서 둘러보니 자기의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꽃이 길가에 피어 있는 하얀 제비꽃이었다는 것이다. "그래, 내 슬픔을 알아주는 것은 너뿐이구나." 그런 뒤로 조 선생에게 하얀 제비꽃은 어머니의 꽃이 되었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꽃이 되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문학관 뜰에 심은 하얀 제비꽃을 강그리 뽑아낼 수 있었겠나. 몇 그루라도 하얀 제비꽃을 그냥 놔두기를 잘했다 싶다. 이런 조동수 선생의 마음이 해마다 하얀 제비꽃들이 어마어마하게 피어 나고 있다. 하얀 제비꽃이 조 선생의 어머니이고 조 선생의 마음이다. 이것을 원장 수녀님이 느끼시고 영혼의 손으로 받아들여신 것이다. 그래서 수녀님은 다른 예쁜 꽃들, 화려하고 큰 꽃들을 제치고 초라하고도 작은 하얀 제비꽃을 사진기에 담으신 것이리라.

그리고 보면 또 수녀님 마음이 하얀 제비꽃의 마음이고 조동수 선생의 마음이고 또 조 선생 모친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세상의 일들은 참으로 깊고도 멀고도 아득하다. 유정하다. 서럽도록 아롭다. 노을 속으로 꽃잎을 싣고 가는 저녁 강물 하나를 본다.

社說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김용균법' 보완해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급을 제한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에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에 끼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업체는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다 안전 관리자도 두지 않았다. 업체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고, 2014년 이후 별다른 산업재해가 없어서 점검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돼 근로감독이나 안전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민주노동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작

업현장 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13명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노동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또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김용균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역 전략 산업 '미래 먹거리'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인 지역의 혁신전략산업을 이제부터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각자 지역의 혁신전략산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제 분회회의를 열고 '2021년 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4개 부처별로 추진해 온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내년부터는 광역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도록 개편했다.

지역 혁신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총 91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원하는 국비 4321억 원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방비 4791억 원을 더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는 자율주행차 편의전장과 스마트 가전, 광융합 등에 국비 284억 원을 포함해 477억 원이 투입되고 전남은 E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 국비 453억 원을 더해 970억 원이 투자된다.

광주의 자율주행차 편의전장과 전남의 E모빌리티 등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정부가 예산은 지원하되 운영은 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이제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리게 됐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전략산업 육성 의지와 로드맵 마련, 전광석화 같은 실행이 중요하게 됐다.

전략산업 육성은 단순히 투자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요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금까지보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고 창조적 인재를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략산업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고 운영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풍요로운 광주·전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위로와 용기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90년대에 내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위로였던 것 같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80년대의 삶에 대한 위로.

위로받고 싶으나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인간은 외롭다. 그러나 진정한 있는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하는 이가 당사자의 아픔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느끼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남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은 이기적인 감정이다.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나의 아픔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럽도록 외로운 마음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내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그제서야 알았다. "나도 저 여인처럼 위로 받고 싶었구나" 새어나오는 탄식처럼 나는 혼잣말을 했다.

80년 광주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남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5·18 때문에 구속되기도 했고,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람이다. 우리끼리 위로할 수 있다. 만약 광주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외국인이 우리를 위로했다면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하겠지만 진정한 위로라고 하긴 힘들다. 위로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 문제인지 굳이 돌아 들어가는 여인의 뒤를 따라가 안아준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 인간 문제인은 하고, 나는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2020년 5월 19일. 어제는 5·18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5·18을 기억하였다. 한때,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애써 광주를 외면하거나 혼자 마음 속에 담고만 있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80년 광주는 기억해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그런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내가 과연 80년 5월 27일 광주 도청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제, 어떤 이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었다. 지금의 나라면? 아마 두려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일은 모른다. 세상 모든 일은 다쳐 봐야 안다. 그 순간, 그 장소에 있는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나의 빛바랜 경험을 기억의 심연

에서 끌어 올려 이렇게 자문했다. '80년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시절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잡잡했다. 하지만 세상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 우리 사회는 80년 광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우리 시대에 다시 있어서는 안될 폭력이 재현된다면, 20세기의 그것처럼 탱크와 총칼이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뱃살을 나잇살이라고 한다. 생기는지도 모르게 생기지만, 빼려고 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속성 탓에 핑계 삼아 이런 이름이 붙었나 보다. 마음의 묵은 때도 마찬가지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두툼게 쌓여서 좀처럼 털어내기 힘들다. 마음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털어내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걸림 없이 옮기듯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몸의 때는 혐오하며 매일 씻으면서도, 마음의 때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안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5월 19일 아침, 오월의 한 가운데서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생각한다. 용기는 마음의 무게에 반비례한다.

기 고

재난 기본소득 지원, 무엇이 우선인가?



서현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

지금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재원 부담, 기존 복지 체제 위협, 포퓰리즘, 경기 부양 효과 논란 등으로 실패하거나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할 것이다.

최근 여수시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1인당 40만 원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첫 번째 이유는 여수시의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원대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128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빚을 내라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채무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나 청원인의 주장도 오히려 고 밝혔다. 2019년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되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어 현재 가용 재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예비, 성과 상여금, 행사 축제성 경비, 기타 미집

행 가능 사업 등 252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역 숙원 사업, 환경 개선, 생활 편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 더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수시의 각종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모두 1295억 원이 지원되는 데 이 중 시비가 294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가구당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29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더라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0개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 고양, 부천과 전남 광양시, 경북 예천군, 영천시 등 5개만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추가 지원이 없다.

따라서 여수시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 광역 지원금, 그리고 자체 지원 시책을 통해 시비만 2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 지역 경제 악화 등 악재에 따라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재정 규모는 올해 대비 대폭적인 마이너스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계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를 맞춰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지자체 재정 운영이 씹질 돈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 개개인 입장에서야 10만 원, 20만 원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결국 시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 분야 지원에 직접적인 차질이 올 것이 자명하고, 결국 시민 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당장 1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원할까?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꿈꿔 본다.

無等鼓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활용한 이는 히틀러일 것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 대회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용된 최고의 대회였다. 히틀러는 거액을 들여 건설한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의 독일인이 일제히 손을 들고 '하이! 히틀러!'를 외치게 함으로써 나치즘을 중심으로 민족 단결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히틀러는 나치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행사를 고안해 냈다. 근대 올림픽 이후 최초로 성황 봉송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리스의 올림픽이어서 개최된 성화를 발칸 국가 등 7개국 1500명의 젊은 주자들이 3000여 km를 이어달려 대회장으로 운반하는, 오늘날 성황 봉송과 같은 모습이였다.

결론은 올림픽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했지만, 3년 뒤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는 유럽을 지속적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성화 봉송을 통해 얻은 지리적 정보가 이용됐다고 한다.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애초 히틀러가 진격로 확보를 위해 성화

봉송 이벤트를 고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히틀러만큼 올림픽에 집착한 현대 정치인으로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들 수 있겠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개최권을 따낸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더욱이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목의 후쿠시마 개최와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을 주장하는 등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비판에도 안하무인 격

의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랄 수 있는 '욱일기' 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아시아 전쟁 피해 국가들의 반발도 샀다.

아베 정권의 올림픽에 대한 집착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도 외면했다. 세계인들의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올림픽 개최를 고집했다. 결국 3월12일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고 나서야 올림픽 개최 연기에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자업자득이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국내(국통)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